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 제안

A Recording Strategy Proposal for the Post-Management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천 호 준 (hojun Cheon)*

양 월 운 (Wol-Oun Yang)**

최 태 석 (Tae-Suk Choi)***

목 차

- | | |
|----------------------|-----------------------|
| 1. 서 론 | 4.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기록화전략 |
| 2.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 5. 결론 및 제안 |
| 3. 메가 스포츠이벤트 사후관리 사례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기록의 가치와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된 메가 스포츠이벤트 사후관리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으로서 3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기록화 대상과 주제, 주제별, 계층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제한적인 문헌기록의 보완을 위해 구술기록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 건립과 국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 전략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메가 스포츠이벤트, 기록화전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collect records for the post-management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ch was held in February 2018.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value and types of records of the 2018 Winter Olympics follow-up records were identified, and the cases of mega sports event follow-up were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i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were presented to collect records related to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irst, records were collected based on collection methods over time. Second, records were collected based on the object and subject of recording. Third, records were collected based on subjects related to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study's result can be used to establish a Pyeongchang Winter Olympics memorial hall and to prepare a collection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after holding a domestic mega sports event.

Keywords: Pyeongchang Winter Olympics, post-management, mega sports event, recording strategy

* 우석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스포츠기록문화연구소 소장(sports92@woosuk.ac.kr) (제1저자)

** 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소장(ywooun@rmssoft.co.kr) (공동저자)

*** 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연구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suk@rmssoft.co.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8년 10월 31일 ■ 최초심사일: 2018년 11월 5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18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205-229,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4.20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제23회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이자 첫 번째 동계올림픽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FIFA 월드컵,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 동계올림픽까지 세계 4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을 달성한 6번째 국가로 세계 스포츠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이전까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까지 5개 국가뿐이었다(이준형, 2011). 또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이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국가로서 스포츠강국 뿐만 아니라 관효효과, 경제효과, 국가이미지 제고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적이미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한 스포츠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2번의 유치에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어렵게 2011년 유치에 성공한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유치 경비 분담, 경기장 건설 미숙, 입장료 문제, 관객 문제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숙박료는 여름철 성수기에 비해 3~5배가 상승한 상태로 예약을 진행했으며, 3개월을 앞둔 2017년 11월 목표 티켓량의 30%에 불과함에 지자체와 기업 등에 티켓을 판매하는 실정이었다(최화철, 2017). 이러한

논란은 위기의 동계올림픽, 최악의 동계올림픽으로 전락하여 3000억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김홍순, 2018).

하지만 우려와 달리 유치와 대회가 개막한 이후에는 개최에서 내세운 공식 슬로건 'Passion Connected - 하나 된 열정'을 앞세워 한국만의 혁신적인 기술과 문화, 스포츠 융합을 통해 전세계인이 즐길 수 있도록 한국만의 멋과미를 살리는 올림픽이 진행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군인,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대회운영을 위해 힘쓴 결과 올림픽이 폐막할 시점에는 성공한 동계 올림픽, 최고의 올림픽이라는 외신의 반전평가를 이뤄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출전한 대회이자 말레이시아 외 5개 국가는 사상 첫 동계올림픽 출전을 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수한 빙질을 통한 세계신기록 3개, 올림픽 신기록 25개가 양산되었다. 뛰어난 경기장 관리로 인한 가장 많은 세계신기록이 양산된 대회로 평가되었다(강대호,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평창은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으나 '평화의 땅'이라는 고유명사로 탈바꿈시키는 강렬한 인상을 남김으로써 운영과 흥행측면에서 호평을 맞이한 채 폐막하였다. 뒤이어 치러진 페럴림픽 역시 차질 없는 대회 운영을 선보였고 폐막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공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한 해산조직 개편 단계에 돌입했다(홍춘봉, 2018).

그동안 전세계에서 치러진 하계, 동계올림픽의 경우 지구촌 축제와 화합이라는 호평 속에 폐막 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나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대회 개최를 위해 건설한 경기장의 방치, 채용 인력과 대회관련 기록물의 정리체계 미흡까지 사후관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 후자올림픽으로 기록된 1994년 릴레함메르 올림픽 사례를 본받되 최악의 실패 사례로 꼽히는 1998년 나가노올림픽 사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1994년 릴레함메르 올림픽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임시건물을 통한 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을 최소화한 대회로서 현재도 많은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이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 뒤 이어 열린 나가노올림픽은 환경올림픽을 표방했으나 경기장 시설을 신축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었음에도 개최 이후 활용적 측면에서 지역주민 외에 활용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수익창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적자올림픽 사례로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연합뉴스, 2015).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은 사후관리에 실패한 과거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기념관 건립과 자료실 구축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속적인 회상, 대회 경기장과 시설과 같은 자산의 활용을 통한 경기장이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인 순환 발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록관리를 통한 문화콘텐츠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창출까지 사후관리를 통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유산의 종류에는 경기장, 시설 등의 인프라를 의미하는 유형의 유산, 올림픽 개최를 통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의미하는 무형

의 자산 등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특정 장소와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의 유산보다 올림픽 개최를 통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올림픽에 대한 가치의 변화, 지역 그 자체로서의 변화한 기능 등 무형적 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무형적 자산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평창 지역 자체를 문화적 자산으로 향상시킨다면 이는 비용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기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

약 20일 동안 진행되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유치가 확정된 시점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위원회와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대회를 운영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역시 올림픽파트너 13개, 공식파트너 11개, 공식스폰서 11개, 공식공급사 25개, 공식서포터 33개가 후원되었으며,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등의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단체가 개최와 대회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대회를 주관한 조직위원회의 경우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대회 종료 이후 청산조직만을 남겨둔 채 철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중요한 기록유산을 관리, 창출, 수집한 사후관리를 통해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사후관리 흐름을 반영하여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올림픽기념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평창동계올림픽플라자 가변석과 가설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기념관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박영서, 2018).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올림픽모드 개/폐회식장을 레거시모드 올림픽 기념관으로 공유제산을 변경하여 향후 전시설계와 기념관 조성 용

역을 통한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확인되었으나 기념관 내부에 구축할 전시목록, 수집정책, 기록관을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단순한 행정박물관과 선수들의 기념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기록관리적 요소를 포함해 설립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기록관리 유형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먼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고 사후관리가 구현된 사례를 찾아 특징과 기록관리적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창, 정선, 강릉과 더불어 강원도의 특수 지역에서 진행된 메가 스포츠이벤트로서 강원도가 사후관리의 주체가 되어 관리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종합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을 제안한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기록화하기 위한 선행연구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화하는 선행연구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체육학계에서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을 유산으로 창출하기 위한 연구가 2011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천호준, 인상우(2011)는 올림픽 유산의 관점에서 올림픽 기록사료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 첫 번째 선행연구로 파악된다. 인상우(2014)는 메가 스포츠이벤트 조직위원회의 업무분야를 포

괄할 수 있는 시간적 단계의 구분체계와 조직의 친화적 양상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직위원회의 라이프사이클은 시간 프레임에 따라 대회이전단계, 대회운영단계(준비, 개최, 종료), 대회이후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를 구분하고 조직이 진화되는 양상을 탐색한 연구로서 라이프사이클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로 확인된다. 천호준(2014)은 인상우가 제시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라이프 사이클을 바탕으로 각각의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기록화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천호준, 진현주(2015)의 연구에서는 영국MLA 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의 기억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하고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사회적 기억을 효과적으로 기록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진행된 2011년 연구에 비하여 2015년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연구로 발전되었다. 마지막으로 최태석, 천호준(2018)의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유산 창출 방안을 행정적인 측면과 주제, 계층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서 실현가능한 기록유산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기록학계에서는 이벤트에서 생산된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하기 위한 수집정책, 활용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김덕목(2016)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해주는 마을기록물에 대하여 유형과 소장처를 파악하고 기록물을 바탕으로 활용하기까지의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한국 현대사 연구의 활용과, 마을기록물을 바탕으로 기록관 설립 추진과

수집, 보존, 활용까지 다양한 방안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배양희, 김유승(2017)은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의, 특징,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민간아카이브의 설립주체, 운영방식, 서비스 방식의 다양한 특성을 근거로 공공 영역 아카이브가 비추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을 담아낼 수 있는 기록물로서 수집정책을 설계해야함을 연구하였다. 사례연구와 면담연구를 통해 수집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수집정책의 점검, 수집정책에 필요한 18개의 요소, 저작권 방침 적용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원(2010)의 연구에서는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기록과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역할을 추구하고 폭넓은 사회적 재현을 성취할 수 있고 다양한 집단들과의 연대를 추구할 수 있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적합한 기록화방향을 제안하여 본 연구의 기록화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지역 및 이벤트에 대하여 기록화를 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록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 제시에 그치는 경향이 있으며, 사후관리 체제에 돌입한 행정기관에 필요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제 행정기관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화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파악되거나, 사례분석을 통해 기록화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3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평창동계올림픽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의 가치와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실시된 특별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기록의 가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주관한 공공기관의 생산자료목록을 분석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생산될 수 있는 기록물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외에서 진행된 사후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사례분석으로는 국내에서 개최된 메가 스포츠이벤트 1988서울올림픽과 2002FIFA한일월드컵을 토대로 설립된 기념관을 선정하였다. 두 기관을 선정한 이유는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 기념품과 각종 기록물을 바탕으로 기념관까지 건립한 사후관리 사례로서 실제 기관에 전시된 기록물을 파악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포함하고 있는 기록관리적 요소와 전략을 파악하였다. 둘째, 해외 사례분석으로는 영국MLA위원회의 국민의 기록 프로젝트와 2000 호주 장애인 올림픽 역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2년 주기로 하계와 동계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되지만 실제 사후관리까지 연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두 사례는 사후관리와 함께 메가 스포츠이벤트에서 생산된 기록을 구술을

바탕으로 한 기록을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기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여러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선정하였다.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종료 후 게재된 저널 자료 “The Australian Paralympic Oral History Project: Remembering, reflecting, recording and promoting disability in sport”와 천호준, 진현주(2015)의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 연구를 추가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셋째, 이상의 결과에서 장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후관리 기록화 전략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록화전략을 바탕으로 사후관리와 함께 기념관 설립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2.1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기록의 가치

현대 사회에서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대도시의 올림픽 유치의 증가, 스포츠 종목별 기념관 건립, 스포츠 역사와 연구의 확대와 같은 가치 창출을 추구할 수 있어 올림픽 개최 이후 사후관리가 최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또한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특별 심포지엄 개최, 사후관리 및 유산활용 세미나 개최, 기록 유산 DB구축 용역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2017

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올림픽 유산 활용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록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개발 및 성공 전략, 경기장과 건물의 사후활용에 대한 기초강연, 특별 세션, 토론회가 진행되어 참석인원들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한 한 세미나로 확인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록화” 특별세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록화의 필요성 및 가치, 범위 및 대상, 기록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후관리를 통해 4가지의 파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제강연에서 발표한 파생가치를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이 가지는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은 사후관리를 통해 기념관의 건립, 기념관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이 진행된 평창동계올림픽 플라자를 재건축하여 올림픽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평창군 인근에 위치한 스키박물관의 사료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수집된 기념품, 기록물 등을 바탕으로 동계올림픽 개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콘텐츠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강원도청에서는 올림픽기념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및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건립 실시단계부터 기록학계에서도 시의성을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 기록관리를 진행하여 기념관 설립을 통한 가치창출 및 콘텐츠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은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적 기억의 포착을 통한 올림픽 역사의

온전한 전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사회적 기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억을 수동적으로 '남겨진 과거'가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구축'된 사회적 산물로 이해(최정은, 2011)하게 되면서, 기억이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 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역사 관련 학계에서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기록보다는 다른 진실, 대안, 이야기, 목소리에 대한 인식으로 점차 확대 집중하고 있다. 단순한 올림픽 메달수와 금메달 같은 성적 지향주의에서 벗어나 올림픽의 역사와 에피소드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보다 풍부하고 진실성 있게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만에 개최된 올림픽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이벤트로서 기록을 바탕으로 올림픽 역사에 대한 풍부한 스토리와 다양한 기록을 양산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은 사후관리를 통해 차기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대회 운영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올림픽 유치 단계부터 개최, 올림픽 운영, 폐막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기록은 향후 국내에서 개최될 메가 이벤트의 지식창출의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사후관리까지 이어진다면 차기 메가 스포츠이벤트 운영 시 예산 절감 및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은 사후관리를 통해 문화 콘텐츠 제작과 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와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13조 8,000억으로 조직위원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소영, 2018). 공식보고서에 기록된 자료 외에도 2011년 유치가 확정된 이후 7년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과 비용은 막대하게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최비용과 투입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생산된 기록을 바탕으로 만화, 영화, 교양도서, 교육자료 등의 문화콘텐츠로 제작한다면 투입예산에 버금가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를 바탕으로 제작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국가대표', '코리아', '킹콩을 들다' 등 문화콘텐츠로 제작된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은 것은 물론 대중들에게 감동적인 영화로서 회자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준 컬링과 스켈레톤 같은 종목의 기록을 사후관리하여 향후 문화콘텐츠로 제작한다면 추가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기록의 유형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생산된 기록을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록화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기록화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화 대상의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경우 기록 수집단계부터 실패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인상우(2014)의 연구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진행단계를 시간프레임을 활용하여 이벤트 이전 단계, 운영 단계,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이벤트 조직의 변화를 탐색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록학계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 역시 특정 사건을 연구함에 있어 수집정책과 수집전략을 먼저 설계하고 생산된 기록을 수집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비추어볼 때 평창동계올림픽 역시 사후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창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이를 수행해야 한다.

창출범위를 설정하기에 앞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생산될 수 있는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생산/접수하는 공공기록이다. 각종 주요 시설 활용, 협조요청, 용역발주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접수하는 공공기록이 존재한다. 행정기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념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생산된 행정박물과 간행물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와 관련된 경기기록이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생산되는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서 출전 국가, 선수, 경기일정, 경기 결과 등을 관리하는 경기기록은 경기분석과 함께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데까지 실시간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세 번째 기록은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는 민간 기록이다. 최근에는 민간기록 생성의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생산되는 유형 또한 다양하다. 고급 장비를 활용한 사진기록, 영상기록, SNS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생산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공모전에서 수집된 기록 역시 민간기록의 유형으로 포함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는 민간기록과 지역에서 생산되어온 기록을 수집 및 활용

하여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기도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또한 강릉, 정선, 평창에서 나뉘어 동계올림픽이 진행되었고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기록의 유형 또한 다양하기에 이들의 기록도 주체와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확인해본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공공기록의 유형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해본다.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기관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도청, 강릉시청, 평창군, 정선군 5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였다. 5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한 이유는 개최식이 개최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을 비롯하여 13개의 경기장이 위치한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에서 생산/접수된 공공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기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조직도를 참고하였고, 정선군 올림픽지원단, 강릉시 올림픽보전과, 평창군 올림픽시설과, 강원도 빙상시설과 사후활용팀 등으로 이관되어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유산 창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공개청구기간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2011년부터 올림픽이 진행된 2018년 2월까지의 기록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3주간 진행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정에 맞추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생산목록을 받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강원도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록물은 총 1,112개로 확인되었

다. 특히 강원도청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주관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 종료 이후 이관한 강원도청 기록물을 이관받아 보유하고 있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문서도 함께 확인하였다. 생산기관별로 기록물목록을 분류하게 되면 생산한 기록물을 접수하고 주고받은 부서로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록의 분석결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록물목록을 키워드로 분류하여 가장 많이 생산된 유형의 문서와 관련 유형의 기록물 내용을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생산된 유형의 문서는 요청과 관련된 문서로서 408건이다. 요청문서가 많은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업과 의사소통이 필요하기에 가장 많이 생산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된 유형의 문서는 알림으로 139건이다. 알림 유형 역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진행하고 관련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기관에 관련 지시사항을 통보하고 알리고자 이와 같은 유형이 많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2개의 유형 외에 통보와 같은 유형, 보고와 같은 유형의 기록물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비공개로 책정하고 있어 연구보고서, 결과보고서와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요청’ 키워드로 분류한 기록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내용은 교통대책, 시외버스 증회 대책, 특별교통대책과 같은 관람객과 참가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된 교통운영과의 기록물을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알림’ 키워드로 분류한 기록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내용

은 대회정보 알림, 입장권 판매 알림, 인력 배치 알림과 같은 올림픽운영국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가장 많이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강원도 정선군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4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록물은 총 1,231개로 확인되었다. 정선군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부서는 동계올림픽지원단으로서 정선군 각 부서와 강원도청,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주고받는 생산 및 접수 기록 업무를 실시하였다. 정선군 역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의사소통을 위해 생산/접수하는 요청과 관련된 기록물목록을 가장 많이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강원도 평창군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3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록물은 총 382개로 확인되었다. 평창군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부서는 올림픽시설과와 올림픽기념사업단으로서 평창군 각 부서와 강원도청,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주고받는 생산 및 접수 기록 업무를 실시하여 요청과 관련된 기록물목록을 가장 많이 확인하였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자원봉사과 사후활용, 도시경관 활용과 관련된 행정기록물이 다수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상당수의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2가지의 기록물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림픽 기록관리(백서)계획과 올림픽종합실행계획 과업지시서로서 강릉시가 올림픽 유치 이후 준비과정부터 올림픽 개최과정까지의 기록을 모두 종합하여 발생한 에피소드를 포함한 백서를 계획하고자 하는 기록물 유형을 확인하였다. 종합실행계획

과업지시서에서는 강릉시의 지역현황과 올림픽 관련 계획을 담아 지역발전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로드맵을 담은 기록물을 확인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공공기관의 행정기록물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해당 기록물목록을 분석한 결과 지역축제가 아닌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평창동계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공기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요청, 알림과 같은 유형의 목록을 가장 많이 확인하였다.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에도 지역단체,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등 수많은 단체가 협력하고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용역도 많이 수행되었다. 용역의 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연구보고서는 당해연도에 한해 비공개로 책정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때 향후 연구에서 이를 감안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요청, 알림, 통보, 보고와 같은 단순한 행정 기록물을 보완할 수 있는 기록물이 다수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메가 스포츠이벤트 사후관리 사례

3.1 국내 메가 스포츠이벤트 사후관리 사례

3.1.1 서울올림픽기념관

서울올림픽기념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영광과 성과를 재조명하고 올림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1990년 최초 개관하였다.

기관의 설립과정과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기

록물의 소장 현황을 확인하고자 2018년 5월 기관을 방문하여 기념사업팀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련내용을 청취하였다. 특히 1988 서울올림픽은 인종, 종교, 이념의 벽을 넘어 인류 화합의 장을 형성하였던 대회로서 전 세계 국가가 출전했던 최초의 올림픽으로 기록되고 있다. 최초로 개관했던 1990년 당시 현재 올림픽파크텔 3층에 1,422㎡의 면적으로 개관하였다. 공간의 부족성과 기념관의 확장을 위해 1999년부터 올림픽 회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9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올림픽회관에서 재개관되었다. 동시에 문화관광부에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최초의 체육박물관으로 확인되었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4,498㎡의 면적으로 보다 넓은 공간에 개관됨으로써 1988년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기록물 외에도 각종 국제대회와 관련된 기록물을 전시 중이다.

서울올림픽기념관은 평화의 장, 화합의 장, 번영의 장, 영광의 장, 희망의 장 등 총 5개의 전시장과 스포츠 체험관, 기획전시실,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단계, 준비단계, 경기운영단계, 인력, 시설, 문화행사까지 시간의 흐름과 주제별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기록물품을 소장하고 있다.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한 것은 물론 역대 메달리스트의 핸드프린팅을 제작하여 기념관 앞 광장에 전시하고, 단순 기념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기념품숍을 오픈하였다.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한 20주년, 25주년 기념행사는 지속적으로 기념관에서 주최되었으며, 한국 체육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되었다. 광복70주년 특별전, 2016 리우올림픽 특별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그림 1〉 서울올림픽기념관

성공기원 특별전까지 주최하고 2018년 서울올림픽 30주년을 맞이하여 7월 리모델링을 위한 장기 휴관에 돌입한 상태이다. 휴관으로 인해 서울올림픽 30주년을 맞이한 2018년, 30주년과 관련된 행사와 전시는 인근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관에는 국내 유일의 올림픽기념관으로서 2년 주기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념품과 기록물이 수집,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기념관에서 전시 및 관리하고 있는 기념품 목록은 총 12,605 점으로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으며 〈그림 2〉와 같이 유물과 기념품이 전시되어있다.

서울올림픽기념관에서 기록관리적 요소가 반

영된 곳은 대한민국 올림픽 참가의 역사와 종목의 역사를 실제 기념품과 혼합하여 연표로 제작한 코너로서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념관에서 확인할 수 없던 기록관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곳은 서울올림픽자료실으로서 지하 1층 자료실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행정기록, 영상, 음악자료 등을 수장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대중들에게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수장고를 통해 관리되며 기념관이 박물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자료실은 도서관적 측면과 기록관리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각종 문헌, 영상, 음악 자료를 소장하고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2〉 서울올림픽기념관 유물 전시



〈그림 3〉 서울올림픽기념관 연표 코너

〈표 2〉를 통해 제공되는 서울올림픽 자료현황과 함께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문헌자료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서울올림픽 자료실에서는 백서를 비롯한 공식보고서, 정부지원 의견, 기획, 총괄, 재정, 성화봉송, 경기운영과 같은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에 비해 보다 기록실(archive)의 측면을 강조한 기관으로서 서울올림픽기념관의 뮤지엄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문헌자료 일부는 PDF로 제작되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자료와 서울올림픽 행사 DVD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음악자료와 기타 공단 발간자료의 경우 검색 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념관과 자료실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표 2〉 서울올림픽 자료실 소장자료 현황

자료종류	자료내용
문헌자료	서울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문헌자료 1990책, 480,000면
	공단 발간자료 및 체육도서
영상자료	서울올림픽 공식보고서
	필름 1,645매
음악자료	경기, 행사 필름 72,000매
	160개국 국가 개/폐회식 음악CD
동영상자료	서울올림픽 기록영화DVD
	서울올림픽 행사 및 대회 DVD 1,771점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대회를 지원한 기관들의 기록물의 상당수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올림픽을 검

색한 결과 소장 중인 기록물 수량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국가기록원 서울올림픽 관련 기록물 현황

자료종류	수량
일반문서	4,332건
도면	2건
사진, 필름	6,356건
녹음, 동영상	107건
정부간행물	21건
일반도서	2건

가장 많은 수량을 포함하고 있는 사진, 필름류를 비롯하여 협정서와 약정서, 백서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문서, 녹음 및 동영상을 총 158개의 기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생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는 서울올림픽을 국가적 기록물로 일괄지정하여 소장하고 있는 상태로, 메가 스포츠이벤트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기준과 수집정책은 설계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이관 받은 것으로서 좀 더 세밀한 목록화와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종료되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기념관 구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기준과 전략을 설계하여 구축해야 한다.

3.1.2 풋볼 팬타지움

2002 FIFA 한일 월드컵 기념관은 사상 첫 월드컵 4강신화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최초 개관하였다.

2002년 독일과 준결승이 펼쳐진 역사적인 서

울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기념관의 설립 과정과 한일월드컵과 관련된 기록물의 소장 현황을 확인하고자 2018년 5월 풋볼팬타지움을 방문하고 관련내용을 청취하였다.

2005년 개관 당시 한국축구사, 영상관, 2002 월드컵 기념코너, 축구관련정보, 기념품 코너 등을 바탕으로 기념관이 구성되었으나 개관 당시에만 관람객이 방문하였을 뿐, 경기장과 다소 동떨어진 위치, 기념품 관리소홀로 인해 최근에는 방문객의 발길마저 끊긴 상태로 10년 이상 방치되어왔다. 이로 인해 흥미요소와 체험요소를 추가하여 2017년 2월 현재의 풋볼팬타지움으로 재개관 되었다.

새롭게 재개관한 풋볼팬타지움은 팬(Fan), 판타지(Fantasy), 뮤지엄(Museum), 스타디움(Stadium)의 합성어로 '팬과 함께 축구의 미

래를 꿈꾸고 축구역사를 만나는 공간'을 의미함으로써 대한축구협회가 만든 '대한민국 축구 최초' 팬커뮤니케이션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재탄생하였다.

특히 기존 기념관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식보고서, 규정집, 현장운영계획과 서적 유형의 기록물과 기념품은 시각적인 요소를 확대한 기념관의 요소요소에 재배치되어있다.

16강 코너는 기록관리적 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된 코너로서 한국축구의 역사와 월드컵 도전을 <그림 5>의 연표에서 숫자와 당시 사진과 함께 월드컵 역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코너로 구성되어있다. 8강 코너에서는 VR을 통해 각종 축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4강 코너에서는 2002 FIFA 한일 월드컵 도전의 역사를 박지성과 이영표의 홀로



<그림 4> 풋볼팬타지움



〈그림 5〉 풋볼팬타지움 연표와 공식보고서

그램을 통해 2002년 당시의 순간을 느낄 수 있으며, 히딩크 동상을 통해 그때의 감동을 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4장 코너의 일부에는 한일월드컵 공식보고서, 규정집, 현장 운영계획과 같은 서적이 전시되어 있다. 마지막 결승 코너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향후 비전을 담은 코너와 월드컵 트로피 모형을 통한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다.

풋볼 팬타지움 내부 전체를 증강현실(AR) 기술로 구현된 백호와 함께 곳곳을 방문할 수 있으며, 과거 단순한 기념품 전시로 인해 흥미 유발과 관람객 유치에 실패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연령층 확대와 흥미유발이 풋볼팬타지움의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월드컵을 만끽하고 추억으로 담아두고 있는 30~40대와 2018 월드컵을 기대하는 10~20대, 2030년 미래의 월드컵을 꿈꾸는 아이들까지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 설립 시 풋볼팬타지움의 시각적인 요소를 참고하여 건립을 진행한다면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념

관으로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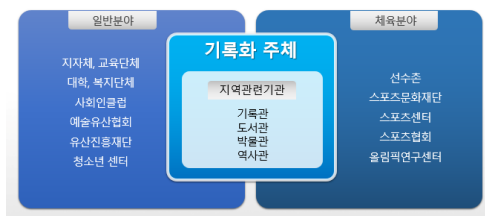
3.2 국외 메가 스포츠이벤트 사후관리 사례

3.2.1 영국 MLA위원회 ‘국민의 기록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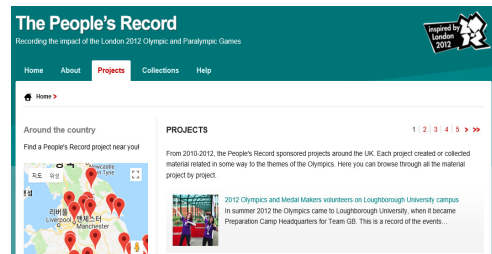
2000년¹⁾ 영국에서는 문화기관 간 협력 및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구로서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협의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이하 MLA)가 설립되었다. 영국 정부는 문화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해당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Sports) 산하에 비정부공공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MLA가 탄생하였다. 설립 이후 MLA위원회는 영국의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아카이브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9월 2012런던올림픽대회 개최가 확정되자 런던올림픽대회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문화올림픽아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MLA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

1) 연구자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D-1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록화” 부분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다.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문화를 결합시키고 런던 이외의 지역으로 올림픽의 열기를 확산하며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가 새로운 고객과 접하고 올림픽 참가자와 관광객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인식을 MLA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2 런던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MLA위원회가 진행한 문화프로젝트는 총 6개로서 그 가운데 문화프로젝트 중 하나인 국민의 기록(The People’s Record) 프로젝트는 올림픽 개최과정과 올림픽이 영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로 올림픽 개최도시의 경험을 기록화하여 영구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2008년 9월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순간부터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영국 전역에서 2012런던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의견들과 반응을 기록화하여 국가적 집단 아카이브로서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6>과 같이 기록화 분야와 주체를 구분하였고 기록화 대상은 연령별(아동, 청소년, 성인), 특수 계층(장애인, 난민), 직업별(운동선수, 미술가, 정치인, 기자)로 구분하여 ‘런던 2012’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진을 국민의 기록 홈페이지에 <그림 7>와 같이 게시하였다.



<그림 6> MLA 기록화 분야 및 주제



<그림 7> 국민의 기록 사업 홈페이지²⁾

이 프로젝트는 건강, 스포츠 복지 영역, 지역 역사 영역, 젊은 사람들의 열망 영역까지 총 3가지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33가지의 세부 사업 가운데 스포츠와 직접 연관성 있는 사업을 파악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건강, 스포츠, 복지 영역에서 지역기록보존소와 유산 진흥재단이 중심이 되어 Sporting Heroes를 맡아 지역 스포츠 영웅들의 기억을 수집하여 전달할 수 있는 구술 사료를 수집 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대학도서관, 대학 기록보존소, 대학 내 올림픽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Olympic and Paralympic Future champions at Loughborough University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경험을 인터뷰하고 기록화 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역역사영역에서는 지역도서관, 지역 박물관, 지역역사관이 중심이 되어 Weymouth Voices을 맡아 지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올림픽의 현재와 미래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하고 이를 구술사료로 제작하였으며, 지역박물관이 중심이 된 Havering Sportng Memories에서는 2012 런던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 국민의 기록 사업 홈페이지: <http://www.peoplesrecord.org.uk/items?type=14>

서 지역주민들의 학교 스포츠에 대한 추억, 경기, 과거 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기록화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셋째, 젊은 사람들의 열망 영역에서는 장애인 협회, 유산관리협회, 요트협회가 중심이 되어 Memories of Greenwich Olympic venus and hopes for 2012를 맡아 2012 런던올림픽에 대한 희망, 이야기,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 4개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기록보존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Tomorrow's Gold in Lambeth 2010에서는 담아내기 위해 지역 젊은이들의 인터뷰를 시행하고 이를 기록화 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기록화 범위를 영역, 주제별, 주제별, 계층별로 명확하게 구분한 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후관리 사례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록화 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일 경우 사후관리가 실패할 우려가 높아지며, 기록화 주체간의 상호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수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는 이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 또한 사후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MLA위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기록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후관리 진행 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록수집을 수월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3.2.2 호주 장애인 올림픽 역사 프로젝트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NLA 이상 호주 국립 도서관)과 Australian Sports Commission(APC 이상 호주 장애인올림픽위

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구술 역사 프로젝트는 1960년 장애인 올림픽 이후 호주에서 장애인 올림픽 운동에 크게 공헌한 호주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호주에서 장애인 스포츠의 성장은 보건 의료 시설 개선 및 장애인 인권의 발전, 삶의 변화 등 스포츠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스포츠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운동의 역사가 문서화된 것이 미비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장애인운동 선수들의 기억과 기록을 잃을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호주 스포츠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관점의 촉진 및 보존,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2건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1960년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했던 8명을 포함하여 1950년대부터 호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호주 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1960년부터 1992년까지의 이미지 40,000컷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목적을 배제한 채 장애인의 역할을 촉진시키고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Wikimedia Commons를 통해 1,762장의 이미지가 공유되었다.

위키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사진은 <그림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외에도 영상, 오디오, 스크랩북, 기념품 등을 도서관 카탈로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음성파일을 통해 공개되는 구술 프로젝트는 <그림 9>의 호주 국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성 파일은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구술사가 운데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여 청취할 수 있다. 호주 장애인 올림픽 운동의 초기 역사를 반영

하며, 호주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촉매제 관점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림 8〉 1960 로마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호주 선수들 사진



〈그림 9〉 구술사 프로젝트 음성 파일 웹페이지(호주 국립 도서관)³⁾

호주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1년 올림픽 명예의 전당을 설립하였다.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아 1964년 장애인 올림픽 팀은 동창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개척자와 장애인 운동선수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호주 장애인 연구센터(APCS)를 설립하여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연구하는 역할을 선

도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호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호주 장애인 운동에 대한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독립적인 단체가 주관한 프로젝트가 아닌 호주 국립도서관, 호주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연구센터, 호주 연구 재단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협조하여 진행된 점이 특이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3월에 진행된 패럴림픽에서도 인간승리와 함께 메달보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스토리가 양산된 바 있다. 차별없이 대우하는 시선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에서도 반드시 본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를 기록화하여 참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3.3 시사점

지금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외 국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메가 스포츠이벤트 종료 이후 기념관의 건립까지 실행된 국내사례와 함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기록화한 국외사례까지 사례별 각각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전시, 기록화, 구술기록, 사후관리 주체별 측면에 따라 한 번 더 파악한다. 4가지 측면을 구분요소로 선정한 이유는 기록화요소를 포함하여 전시할 경우 체계적인 전시가 가능하며, 기록화현상을 반영하여 자료실을 구성할 경우 목록, 주제

3) 호주 국립 도서관 홈페이지: <https://catalogue.nla.gov.au/Record/4901270>

별 분류에 효과적이다. 또한 구술기록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통해 문헌기록을 보완하고 기록화 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며, 사후관리 주체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한 기관이 아닌 다수의 주체적인 기관이 결합될수록 효과적이기에 4가지 구분요소를 선정하였다. 4가지 구분요소에 따라 파악된 사례들의 장점을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기록화 전략에 반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구분요소에 따라 파악한 사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서울올림픽기념관의 경우 기념품과 행정박물을 분류에 따라 전시하며, 기록화요소를 반영한 홈페이지 구축과 자료실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기념관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이 가장 참고할만한 사례라 파악된다. 다만 유물의 분류, 관리, 폐기요소와 유물의 분류코드 구성과 같은 기록관리적 요소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휴관 중인 서울올림픽기념관이 재개관할 시점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풋볼팬타지움의 경우 관람객의 흥미요소를 다량 포함한 체험형박물관으로서 아카이브적 성격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기념품과 행정박물의 분류에 따른 전시, 홈페이지를 통한 기록화 측면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록관리 측면에 따른 분류와 전시는 미흡하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과 관련된 경험적 요소를 포함한 인터뷰로서 박지성, 이영표 선수의 경험담을 AR과 경기장면을 통해 함께 구성한 것은 당시 공식보고서 외에 제한적인 문헌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구술기록 자료라 할 수 있다. 문자로 적혀있는 기록의 결락을 보완하고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어 맥락 확보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단순한 카메라 촬영을 통한 구술기록 방식에서 벗어난 색다른 시도라 파악된다.

셋째, 영국 MLA위원회의 ‘국민의 기록 프로젝트’는 별도의 기념관과 자료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기록관리적 요소를 포함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12 런던 올림픽과 관련된 기록을

<표 5> 기록화전략 구분요소에 따른 국내/외 사례분석 파악

사례	전시측면	기록화 측면	구술기록 측면	사후관리 주체 측면
서울올림픽기념관	포함 (분류에 따른 전시)	포함 (홈페이지를 통한 구축)	포함 (인터뷰 영상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기념사업부
풋볼팬타지움	포함 (분류에 따른 전시)	포함 (홈페이지를 통한 구축)	포함 (AR 영상을 통한 구축)	대한축구협회 풋볼팬타지움
영국MLA위원회 국민의 기록 프로젝트	미포함 (전시 X)	포함 (홈페이지를 통한 구축)	포함 (주제별, 주체별, 계층별 구분)	기록관 도서관 역사관 박물관
호주 장애인 올림픽 프로젝트	미포함 (전시 X)	포함 (홈페이지를 통한 구축)	포함 (특수계층 채록)	호주 국립도서관, 호주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연구센터, 호주 연구 재단

생산하기 위해 도큐멘테이션 전략⁴⁾을 바탕으로 기록화 범위를 주제별, 주제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수행했다. 공식적인 기록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들의 의견을 청취한 구술기록을 풍성하게 수행한 프로젝트로 분석된다. 평창동계올림픽 또한 기록화의 주제, 분야, 대상,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확한 영역을 구분하여 기록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호주 장애인 올림픽 프로젝트는 구술기록을 수집함에 있어 특수계층을 중점적으로 기록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수계층 구술기록을 실시함으로써 제한적인 문헌자료를 대체하고 특수계층의 인권신장까지 구축할 수 있는 효과를 양산했다. 또한 통일된 주제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기록을 생산하였다. 호주 국립도서관, 장애인올림픽 위원회, 올림픽 연구센터, 호주 연구 재단 등 4개 이상의 단체가 협력하여 공동된 결과물을 도출한 만큼 평창동계올림픽 또한 패럴림픽 참가자, 특수계층,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가지 사례 모두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물은 홈페이지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사용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페이지를 통해 문헌자료, 영상, 음성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증과 관련된 웹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자료 수집을 수행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장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4.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기록화전략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올림픽 유산과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메가 스포츠이벤트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사후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학술적인 연구 외에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사후관리 가치를 파악하고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후 국내와 국외에서 실시된 메가 스포츠이벤트 사후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파악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을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록화 대상과 주제, 주제별, 계층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영국 MLA위원회 '국민의 기록 프로젝트'사례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유형을 파악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기록물 목록만을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 또한 50가지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록 수집 단계에서부터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층별, 주제별, 주제별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

4) 기록화전략론(Documentation Strategy: 이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기관, 기록 이용자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선별 방법론이다"이다(천호준, 진현주, 2015).

퍼본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한 기록화 방향에서도 선택적이고 집중화된 기록화를 지향해야 함을 확인한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명확한 대상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수록 사후관리의 가치와 활용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한적인 문헌기록의 보원을 위해 구술기록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록의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는 연구 단계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당해연도에 해당하여 많은 기록물이 비공개로 설정되어있어 파악하기 어려웠다. 향후 기록물이 공개되더라도 용역보고서와 결과보고서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기록의 결락을 보완하기 위해 구술기록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공식결과보고서와 대회 경기기록 외에 올림픽 참가선수, 자원봉사자, 조직위원회 임원, 패럴림픽 참가 선수 등 다양한 계층에게 이벤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담과 기록을 수집할 수 있고 그 기록은 행정기록보다 더 가치있게 다가설 수 있다. 열린 구조로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수록 특정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자세로 기록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국내와 국외사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기록을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기록을 활용할 수 있어야 기록으로서 가치가 존재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맨틱 웹 기술 구현을 통한 사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

다. 이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활용하는 기록게이트웨이(archival gateway)의 개발/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초기 구축비용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된 지역이 각각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록을 게이트웨이의 맥락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기에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의 사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안

지금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에 대하여 연구해보았다. 단순한 대회 경기결과와 대회정보만을 요약하여 집약되는 공식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관리되던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사후관리의 흐름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록유산 창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전략 개발, 수집정책을 연구하는 등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 사후관리 기록의 가치로서 4가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통해 기념관(박물관)의 건립과 기념관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육계뿐만 아니라 기록학계에서도 시의성을 가지고 기념관 설립을 통한 가치 창출을 추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적 기억의 포착을 위한 올

림픽 역사의 온전한 전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올림픽으로서 생산된 기록을 바탕으로 올림픽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기록을 양산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내 메가 스포츠이벤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로서 사후관리를 통해 차기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대회 운영 지식 확보를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록이다. 대회 진행의 특성상 유치단계부터 청산단계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통한 모델 수립과 예산절감, 시행착오 방지까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 제작과 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기록이다. 사후관리 기록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제작을 통해 개최비용과 투입예산에 대한 보전을 진행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닌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을 사후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록 유형을 파악하였다. 공공기록과 경기기록, 민간기록의 세 가지 유형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강원도, 강릉시, 정선군, 평창군에서 생산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공공기록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키워드와 생산된 기록물 유형을 파악한 결과 알림, 보고, 통보와 같은 의사소통을 위해 생산된 기록물을 가장 많이 파악할 수 있었다. 국제 메가 스포츠이벤트로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공기관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기록물이라 파악된다. 또한 기록화 전략을 제안하기에 앞서 국내와 국외의 사후관리 사례를 분

석하고 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 건립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으로서 기록화 대상, 주체, 계층별 범위의 명확화, 구술기록을 통한 기록화, 홈페이지를 통한 기록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지역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외에도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단체가 협력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구술기록을 통한 문헌기록의 보완하여 생산된 기록을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을 제안하는데 있어 공공기록의 유형과 내용에 기초했기 때문에 공공기록을 실제로 분석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했다.

특히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된 당해연도로서 관련된 용역보고서, 결과보고서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향후 이와 같은 기록을 확인하고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회 종료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조직 변화에 따른 해당 기록이 일괄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면 대회를 주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활용, 수집적 측면에서 1단계 이상의 프로세스가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록을 유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록전문직의 능동적인 역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기록관리의 측면의 한계와 더불어 주체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한계로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기장의 사후활용을 놓고 정부와 강원도측의 팽팽한 대립이 발생 중이다. 활용도는 물론 운영예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대립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호평 받은 평창동계올림픽

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바라본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향후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기록 수집 방안, 기념관 관리 매뉴얼과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덕목 (2016).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기록학연구, 49, 299-325.
- 김지원 (2016). 올림픽 구술사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
- 배양희, 김유승 (2017).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기록학연구, 53, 119-159.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인상우 (2014). 메가 스포츠이벤트 조직위원회의 단계적 변화양상에 대한 탐색. 체육과학연구, 25(2), 328-340.
- 천호준 (2014).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사례연구. 기록학연구, 42, 37-71.
- 천호준, 인상우 (2011).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올림픽 기록사료 관리. 한국체육사학회지, 16(1), 67-82.
- 천호준, 진현주 (2015).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 한국체육사학회지, 20(1), 39-54.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 최태석, 천호준 (2018).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유산 창출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 16(3), 61-80.
- Hanley (2012). The Australian Paralympic Oral History Project: Remembering, reflecting, recording and promoting disability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59(3), 295-303.

[웹사이트]

강대호 (2018년 2월 26일). 최대 규모로 시작한 평창올림픽, 끝까지 신기록 풍성.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8&no=130709>

강릉시청 홈페이지 (2018). <https://www.gn.go.kr/www/index.do>

- 강원도청 홈페이지 (2018).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
- 김홍순 (2018년 10월 9일). '3000억 적자 우려' 평창올림픽, 619억 흑자 반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0908504740582>
- 박소영 (2018년 2월 27일). 기업이 1조 대고, 수호랑 95만개 팔고.. 평창은 흑자올림픽.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25&aid=0002800953>
- 박영서 (2018년 3월 27일). 올림픽 개·폐회식장 철거 규모 줄여 기념관 공간 늘리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7/0200000000AKR20180327111400062.HTML?input=1195m>
- 연합뉴스 특별취재팀 (2015년 9월 2일).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성공올림픽 '담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31/0200000000AKR20150831120300062.HTML?input=1195m>
- 이준형 (2011년 7월 7일). 동계올림픽 유치 국제 스포츠 그랜드슬램.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96>
- 정선군청 홈페이지 (2018). <http://www.jeongseon.go.kr/portal/>
- 최화철 (2017년 11월 20일). 평창동계올림픽 우려의 목소리, 저조한 티켓·예매율·바가지 숙박료 등.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8294>
- 평창군청 홈페이지 (2018). <http://www.happy700.or.kr/index.happy/>
-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2018). <https://www.pyeongchang2018.com/>
- 호주 국립 도서관 홈페이지 (2018). <https://catalogue.nla.gov.au/Record/4901270>
- 홍춘봉 (2018). 평창조직위, 해산 조직으로 개편 집행부 축소, 현행 직제는 유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169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Yang-hee & Kim, You-seung (2017). A Study on The collention Policies of Civil Domain Digit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3, 119-159.
- Cheon, Ho Jun & In, Sangwoo (2011). Managing Olympic Historical Records as Olympic Legacy.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16(1), 67-82.
- Cheon, Ho Jun & Jin jin (2015). A Documentation of Social Memory for Mega Sports Event.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20(1), 39-54.
- Cheon, Ho Jun (2014). The Case Study on a Documentation of Mega Sports Ev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37-71.

- Choi, Jeong-eun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Social Memory' and Oral Record Focused on the Role of Archivist in the Stages of Oral Record Collecting and Planning.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3-55.
- Choi, Tae Suk & Cheon, Ho Jun (2018). The study on creating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Records Legacy through Overseas Ca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6(3), 61-80.
- In, Sangwoo (2014). The Evolution of Sport Event Organization, An Exploratory Study.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5(2), 328-340.
- Kim, Duk-Muk (2016). Collecting and using manua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9, 299-325.
- Kim, Ji-won (2016). A Plan for Set up of Olympic Oral History Digital Archives. Major of Sport Recording and Analy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Seol, Moon-Won (2010).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03-149.